

탐

황석영

3315 최비아

#1_작품 소개

갈래	단편 소설, 전쟁 소설
성격	사실적, 비판적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배경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중, R.POINT로 명명된 버려진 보금대대 앞 불타 버린
주제	-무의미하고 더러운 전쟁의 추악한 본질 비판 -전쟁의 비인간성과 무의미함에 대한 비판
특징	-전쟁을 겪는 인간 군상들의 다양한 행동 방식과 심리를 사실적으로 그려냄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문체로 전투 상황을 긴장감 넘치고 생생하게 묘사함 -소설의 상징성을 활용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2_등장인물

문상병, 통신병	적의 저격으로 희생된 인물들로 부대원들에게 전쟁의 공포를 깨닫게 해 줌
소총수	적에게 인질로 잡혀 아군의 총에 죽은 인물로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비참한 운명을 상징
분대장 (젊은 하사관)	고지식한 성격으로 상부의 지시에 충실한 인물로 마지막 전투에서 부대원들을 위해 희생함
'나'	-냉소적 성격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외톨이형 인물로 전쟁과 삶의 의미를 고민하고 괴로워함 -탐을 부수려는 미군에게도 당당히 할 말은 함

#3_전체 줄거리

'나'는 본대에서 보충병으로 차출되어 작전 지역인 R. POINT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나를 포함하여 아홉 명의 병사가 맡은 일은 오래된 탐을 적이 옮겨 가지 못하게 지키는 것이다. 다음 날 다리를 지키던 미군들은 철수하여 작전 지역에는 우리 부대만 남게 된다. 그날 저녁 작전이 변경되어 초소 주위의 배수로를 좌후 저항선으로 삼아 적의 기습을 기다리고 있다. 밤 10시쯤 적의 사격으로 시작된 격렬한 전투 속에서 적의 인질이 된 소총수와 통신병, 나이 어린 분대장이 목숨을 잃었고, 남은 부대원은 탈진하여 굳어진 시체 사이에 남겨져 즐기 시작한다. 다음 날 우리가 있는 지역으로 진주하는 미군은 캠프와 토치카를 지을 요량으로 불도저 한 대로 바나나 밭을 밀어 버리며 탐마저 무너뜨렸다.

발단	'나'는 본대에서 보충병으로 차출되어 오래된 탐을 지키라는 임무를 받음
전개	다리를 지키던 미군이 철수하여 작전 지역에는 우리 부대만 남게 됨
위기	정찰 활동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작전 변경으로 마지막 전투를 기다림
절정	밤 10시쯤부터 적군의 기습을 받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부대원들이 목숨을 잃음
결말	우리가 지켜낸 탐을 미군이 불도저로 무너뜨려 버림

#4_탐의 상징성

- 이 작품은 탐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전쟁의 무의미성을 폭로하고 있고, 탐은 베트남인들에게 인식되기에 때론에 작으로부터 수호할 전략적 가치가 있는 대상이자, 나의 부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대상이다.
- 우리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탐을 지켜내지만 미군들이 기지를 짓기 위해 탐을 부수는 상황을 부여 줌으로써 탐을 지키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의 부조리함과 전쟁의 무의미함을 드러내고 있다.
- 또한 탐을 부수는 미군의 모습을 통해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제3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실상에 대해서도 고발하고 있다.

베트남인	중고의 대상으로 여기고 인식시함
적군	-정치적, 전략적 대상으로 인식함 -탐을 빼앗기 위해 우리 군과 전투를 벌임
우리군	작전 명령에 따라 탐을 지킴
미군	무가치한 돌덩어리로 인식하고 탐을 무너뜨림

#5_전쟁의 비인간성과 무의미성에 대한 고발

이념과 명분은 궁극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전쟁에서는 정작 이념이나 명분만이 남고 인간이 도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전쟁 상황에서 인간은 이념이나 명분을 위해 죽음을 불사하기도 하지만 정작 그것으로 인해 인간의 생명은 쉽게 희생된다. 어떠한 경우라도 인간의 생명은 소중히 여겨져야 하기에 이와 같은 상황은 전쟁 자체의 무의미성을 부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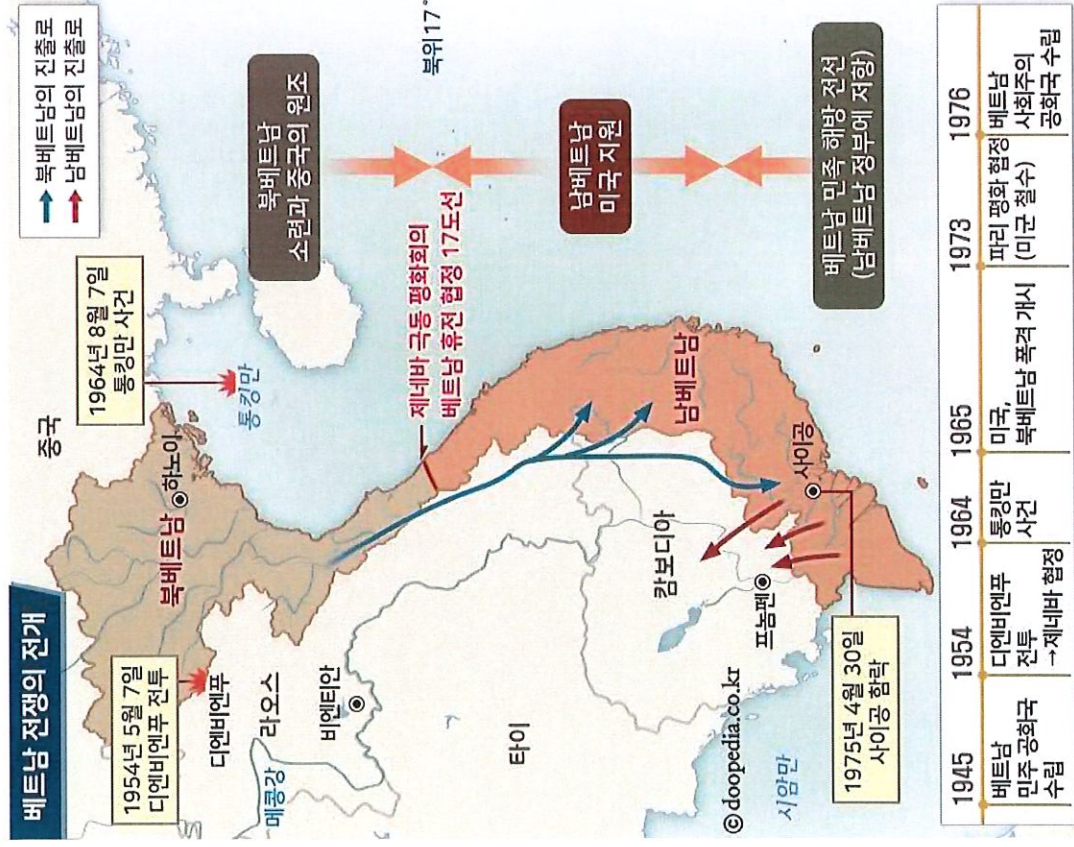
또한 절여한 냉전의 대립은 강대국의 논리에 따라 제3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는 문제를 남기도 한다. 황석영의 '탐'은 베트남전을 배경으로 이와 같은 전쟁의 비인간성과 무의미성을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베트남 전쟁

1960년에 결성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NLF)이 베트남의 완전한 독립과 통일을 위해 북베트남의 지원 아래 남베트남 정부와 이들을 지원한 미국과 벌인 전쟁.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베트남전쟁에 미국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파병한 국가.
1964년 9월 의료진을 중심으로 한 비전투 요원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백마부대 등 30만 명이 넘는 전투병력을 베트남에 파병함.
그 과정에서 1만6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많은 참전 군인들이 고엽제 피해 등의 후유증에 시달림.



< 답 >

황석영

3409 유나영

갈래 : 단편소설, 전쟁소설

성격 : 사실적, 비판적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배경 : 1960년대 베트남

제재 : 전쟁의 공포와 인간성 파괴

주제 : -제국주의적인 침략 전쟁의 부조리와 무의미함

-무의미하고 더러운 전쟁의 추악한 본질

-전쟁의 참상으로 인한 인간성 파괴

1. 작가

<황석영>

근대화 과정 또는 군대 제도나 전쟁 등의 상황에 따른 인간성 상실과 황폐화 문제를 주로 다루었으며, 소설을 통해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작가의 작품 중 <탑>은 작가가 1966 ~ 1967년에 겪었던 베트남 전쟁 참전 경험을 바탕으로 쓴 단편 소설이다.

*** 베트남 전쟁(월남전)과 한국군 참전 배경

1955년~1975년까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냉전 시기에 초강대국이었던 미국의 군대가 남베트남에 파병되어 북베트남을 상대로 싸웠지만 졸전을 거듭하면서 고전하게 된다.

당시 전투 병력이 모자라게 된 미국은 당시 한국에 주둔해 있던 미군 일부를 베트남에 파병하려고 했었다. 이에 따라 전력에 공백이 생겨 한국의 안보 부담과 북침을 걱정한 정부는 미군 대신에 병력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했고, 미국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1964년 9월 의무대와 태권도 교관단이 파견되었다. 이를 시작으로 1967년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국군이 베트남에 파견되었고, 그렇게 5만 병력 규모의 한국군(누계 합산 총 30만)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

2. 줄거리

오상병(나)은 보충병으로 차출되어 본대로부터 작전 지역인 R.POINT에 도착한다. 그리고는 한 부대의 아홉 명의 병사와 함께 월남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오래된 탑을 지니는 것이라는 무모한 임무를 듣게 된다. 월남인의 감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인 물건인 탑을 적의 울거가지 못하게 지킨다는 것이다. 병력 보충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임무를 지속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적은 탑과 생포한 한 명의 게릴라 인질 때문에 우리에게 합부로 포를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는 상황이었지만 밤만 되면 대통령 폭탄 두드리는 소리, 호각소리, 고함 소리 등으로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근처 B교량의 파괴로 부대의 철수가 지연되고, 샌드백 방벽 너머 부대의 폐허 쪽으로부터 적이 한 명 나타난다. 소총수는 무장을 풀러놓고 그를 생포하기 위해 나갔지만 적에게 인질로 잡혀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다음 날 교각을 지키던 미군이 철수하고 R.POINT에는 우리만 남게 되었지만 중대장으로부터의 철수 명령은 내려지질 않았다. 마을 수색 중에 어젯밤 포격으로 부상당한 적을 한 명 처치했지만 대신 적의 저격으로 문상병이 죽었다.

그날 저녁 작전이 변경되어 밤에 우리는 초소 주위의 배수로를 최후 저항선으로 삼아 이곳에서의 마지막 전투가 될 적의 기습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 10시쯤 적의 사격으로 시작된 격렬한 전투 속에서 적의 인질이 된 소총수와 통신병과 나이 어린 분대장이 목숨을 잃었고 남은 부대원은 탈진하여 굳어진 시체 사이에 넘어져 즐기 시작했다.

다음 날 시체와 장비를 싣고 R.POINT를 나온 우리 뒤로 미군은 캠프와 토치카를 지을 요령으로 불도저 한 대로 바나나밭을 밀어버리며 우리가 지켰던 탑마저 무너뜨렸다.

3. 탑(종교)의 의미

= 전쟁의 부조리함과 그 결과의 무의미함

[종교적 가치로 인식]

- 월남인 : 탑을 신성시함

- 인민 해방 전선 : 정치적, 전략적 가치로 탑을 인식해 탈환하기로 함

[종교적 가치로 인식 X]

- 한국군 : 생명을 걸어 탑을 지키는 것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함

- 미군 : 무가치한 돌덩이로 인식해 밀어버림

• 배경

- 시간: 1960년대 1)베트남 전쟁
- 공간: 베트남, R·POINT로 불리던 버려진 보급대대 앞 불탑 부근

• 갈래

- 단편 소설, 전쟁 소설

• 성격

- 사실적, 비판적

• 주제

- 침략 전쟁의 부조리함과 무의미함
- 전쟁의 참상과 인간성의 부재

• 시점

- 1인칭 주인공 시점

• ‘탑’의 의미

- ‘나’의 소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대상.
- 적군: 정치적 가치를 인정하여 탈환하고자 하는 대상.
- 미군: 캠프를 위해 밀어버림. 큰 가치를 지니지 않음.
- 작품 외적: 전쟁의 무의미성을 고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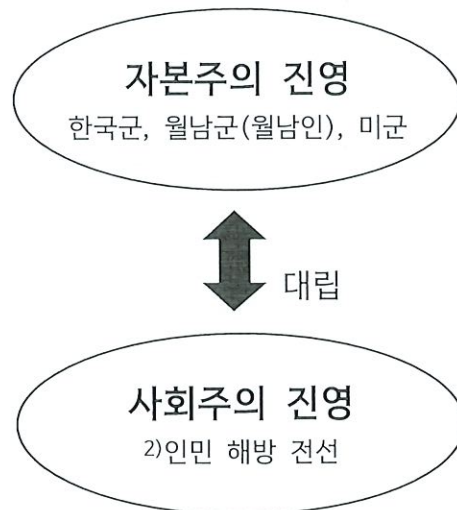
1) 베트남 전쟁

사회주의 북베트남과 자본주의 남베트남 사이의 전쟁. 1955년 내전의 성격으로 시작하였으나 1960년대 미국 및 여러 나라가 지원하며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대립하는 국제전으로 발전함. 남베트남과 미국의 패배로 종전.

• 줄거리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게 된 ‘나’는 후방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내다가 원대 복귀한 후에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R·POINT로 파견된다. R·POINT에 도착해서야 그곳에서의 임무가 보잘것없는 돌탑을 사수하는 것임을 알게 되고, ‘나’는 터무니없는 병력으로 적군의 공격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 기막혀한다. 탑을 중심으로 밤낮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지만 끝내 탑을 사수하는데 성공한다. 총성이 잦아들자 미군 공병 부대가 진군해 온다. 미군들은 돌탑에 관심도 주지 않은 채, ‘나’의 분대원들을 후방으로 후송시켜 주겠다고 차에 태우고 불도저로 돌탑을 밀어버린다.

• 관계도



2) 인민 해방 전선

‘나’의 소대와 대립. ‘나’의 소대가 지켜야 하는 ‘탑’을 정치적·전략적 가치로 인식하여 탈환하고자 함. 미군과 대조.

<탑>

황석영.

- 갈래: 단편 소설, 전쟁 소설
- 성격: 사실적, 비판적
- 배경: 1960년대 베트남 전쟁 중, R.POINT로 명명된 버려진 보급대대 앞 불탑 부근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주제: 무의미하고 더러운 전쟁의 추악한 본질 비판 / 전쟁의 비인간성과 무의미함에 대한 비판.
- 특징: ① 전쟁을 겪는 인간 군상들의 다양한 행동 방식과 심리를 사실적으로 그려냄.
② 간결하고 속도감 있는 문체로 전투 상황을 긴장감 넘치고 생생하게 묘사함.
③ 소재의 상징성을 활용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냄.

'탑'의 상징성

탑	베트남인	종교의 대상으로 여기고 신성시함.
	인민 해방 전선 (적군)	정치적, 전략적 대상으로 인식함. 탑을 베앗기 위해 우리 군과 전투를 벌임.
	우리 군	작전 명령에 따라 탑을 지킴.
	미군	무가치한 돌덩어리로 인식하고 탑을 무너뜨림.

줄거리

- 발단 — '나'는 본대에서 보충병으로 호출되어 오래된 탑을 지키라는 임무를 받음.
- 전개 — 다리를 지키던 미군이 철수하여 작전 지역에는 우리 부대만 남게 됨.
- 위기 — 정찰 활동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작전 변경으로 마지막 전투를 기다림.
- 절정 — 밤 10시쯤부터 적군의 기습을 받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부대원들이 죽음을 잃음.
- 결말 — 우리가 지켜낸 탑을 미군이 불도저로 무너뜨려 버림.

표현상 특징

- 비유적 표현: 인물이 느끼는 숨 막히는 긴장감 두려움을 표현함 (ex. 두개골 속이 곧 터져 나가기 직전인 것처럼)
- 의문형 표현: 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회의감을 나타냄. (ex. 남의 땀, 남의 얼굴 속에 있는 우리는 뭐냐)
- 추측적 표현: 적군의 상황에 대한 인물의 판단을 나타냄. (ex. 적의 분대는 크게 타격을 받은 것 같았다)
- 청각적 이미지 사용: 적군에게 둘러싸인 아군의 상황을 알 수 있게 함 (ex. 특약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다가 그쳤다)